

지방언론 살리기로 지역소멸시대 대비

尹정부 지역신문발전기금 10% 삭감 따라 토론회 열려 기금존치·국고보조금 연장평가 결과 통한 해결책 제시

지역소멸시대를 대비한 지역언론 살리기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10% 삭감하고 나선 가운데 이를 되살리고 지방언론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 존치평가와 국고보조금사업 연장평가에 대한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바른지역언론연대, 지역신문발전기금 중간지우선지원정당사협의회와 함께 주최했다.



발제에 나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이용성 위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속가능성과 예산 수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기금존치평가와 국고보조금 연장평가 결과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좌장으로 참석한 평택시민신문 김기수 대표이사, 토론자로 참석한 문체부 미디어정책과 강연경 과장 중앙대 경제학과 김정인 교수 언론노조 전대식 수석부위원장 우희창 전 지역신문발

전위원회 부위원장, 오원집 원주대에 이 대표이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존치평가에 대해 각 계의 입장에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윤덕 의원은 "지방소멸을 걱정해야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지역의 바른 소식을 전해오던 지방언론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지역신문발전기금특별법은 2021년 12월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되어 지역신문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것으로 예측했으나, 일부의 기대와 달리 지역신문발전기금 안정성과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존치에 대한 건설적인 토론회가 이루어져 지역주민의 풀뿌리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인권협의회와 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들은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 집행정지 불허에 대해 규탄에 나섰다.

“정경심 전 교수 형 집행정지 불허 규탄”

전북인권협·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 이명박 등 예로 들며 형평성 문제 제기 “외교·안보·경제 위기 극복 댈기 위한 검찰 독재 횡포”尹정부 정책 비판

전북인권협의회와 전북의 기독교인 등이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불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염려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먼저 전북인권협의회와 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정경심 전 교수의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등의 의사 소견에도 형 집행정지가 불허된 것에 대해 “전쟁 중에서도 적군과 아군을 모두 치료해주게 국제법이 되어있다”며 “죽어가는 사람은 총으로 쏘 죽이

면 안 되고, 호송해서 치료한 다음 따져야 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도리이다.”고 정경심 전 교수의 형 집행정지 불허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협의회는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착박한 이명박도, 국정농단의 박근혜도 복역 중 질병치료를 이유로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해주고 결과적으로 석방했다”며 형평성면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지나친

미국 패권에 치우친 패착으로 고립무원에 처해진 국정실태로 외교, 안보, 경제위기 극복에 무능을 댔기 위한 검찰 독재 횡포까지 벌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는 전쟁의 참혹함을 우크라이나를 통해 보고 있으면서도 전 권위기 수위를 높여가는 작금의 과거 군사독재로의 회귀 정책을 염려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군사정책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김경수 기자

‘무진장 고원길 통해 상생해야’

관광자원 개발책 찾고자 도의회서 정책토론회 개최

전북도 등부산업원의 관광산업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5일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무진장 고원길 조성 및 운영방안 마련'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정책토론회는 무주, 진안 장수 세 지역의 길은 길을 연결해 '무진장 고원길'이란 광역 트레일을 조성하고 관광자원 개발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박용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세 지역은 하나의 문화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로, 고원길 조성을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은 5일 전라북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무진장 고원길 조성 및 운영방안 마련'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해 세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정일 우리팍건기 이사장의 특강에 이어 정병귀 진안고원길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았다. 종합토론에 박용근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끌었다. 지정토

론자로는 한순옥 전북도 자연생태과장, 전북연구원 이성재 연구위원, 무주, 진안 장수군 관계 공무원 등이 나섰다.

토론회에는 국주영은 의장 윤정훈 도의원, 전용태 도의원 권요안 도의원을 비롯해 문화해설사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경수 기자

도, 내년 임산물 가공산업 공모 선정

무주덕유산반딧불영농조합법인 선정... 총사업비 17억 규모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산림청임주관하는 내년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5일 밝혔다.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공모는 임산물의 2차 가공 및 제품화로 소비 확대와 임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문 가공업체로 육성을 꾀하는 정책이다.

이번 공모에 전국에서 6개소가 응모했는데 전북지역은 천마를 이용해 천마스틱(고농축액) 등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무주덕유산반딧불영농조합법인 최종 선정됐다. 이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7억 원 규모로 천마 고농축액 제품 생산을 위한 자동화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천마는 도내 무주군이 주산지이다. 2019년 기준 전국생산량(436.82kg)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천마를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판매는 무주군(덕유산반딧불영농조합법인)이 유일하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천마 가공식품 생산시설 증설이 완료되는 2024년 이후에는 판매량 증가에 따른 천마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천마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수입도 기대하고 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복지국장은 “산림소득사업 중앙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임업인에게 신청부터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신청지원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임업인 소득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도, 양묘시설 현대화 공모 2년 연속 선정... 1억 확보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양묘시설 자동화를 통한 노동절약형 생산 구조 개선과 각종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한 묘목 생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2023년도 민유 양묘시설 현대화 공모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묘목생산대행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산림청에서 서류검토,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타당성, 양묘시설 운영실적, 자기비용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이에 2023년까지 생육환경조절시스템을 갖춘 온실, 자동급수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